4일 Market Index
코스피 5683.80 (+35.01)
코스닥 714.95 (+10.56)
금리(국고채 3년) 3.714 (-0.022)
환율(원·달러) 1341.5 (+0.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민주당, 4년만에 상·하원 장악 '블루 쓰나미' 덮쳤다

美 중간선거

텍사스·캔자스 등 공화당 보유한 상원 의석수 7개 민주서 가져가 트럼프 행정부 심판론 작용한 듯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텍사스와 캔자스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가져갔다. 중간선거에서 양원 다수당이 동시에 바뀐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센 심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에, 과도한 관세정책이 초래한 물가상승으로 미국 유권자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4일 외신을 종합하면, AP통신은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의 다수당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ABC뉴스도 한국시간 4일 오후 4시 38분까지 선거구별 당선 예측을 합산한 결과, 하원은 민주당 229석, 공화당 164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원 과반선은 218석이다. 상원에선 무소속 2명을 포함한 민주당계가 54석, 공화당이 43석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은 하원에서 4년 만, 상원에서 2년 만이다.

선거 전 상원에서 공화당에 53석 대 47석으로 뒤졌던 민주당계는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텍사스·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아이오와·노스캐롤라이나·메인 등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 7개를 가져왔다. 특히 접전지 미시간에서도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이겨 기존 민주당 의석을 지켰다.

텍사스에선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한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를 꺾었다. 캔자스에선 애덤 해밀턴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로저 마셜 의원을 눌렀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셰라톤 버밍엄 호텔에서 앨라배마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더그 존스의 지지자들이 미 상원의 민주당 장악을 알리는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AMD 최대실적… 삼성·SK, HBM4 '순풍'

3분기 매출 18조, 전년비 45%↑
MI455X, 메모리 50% 더 탑재
국내 공급사들도 수혜 확대 예상

AMD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AMD는 전작보다 메모리를 50% 더 탑재한 신형 인공지능(AI) 가속기를 앞세워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향후 해당 가속기를 탑재한 서버 생산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판매도 확대될 전망이다.

4일 AMD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133억7700만달러(약 1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적 성장은 데이터센터 부문이 이끌었다. 이 부문 매출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에픽'의 수요 증가와 신형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 계열 출시에 힘입어 97% 늘어난 85억5000만달러(약 11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헬리오스 생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판매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 가속기인 MI455X는 메모리 탑재 용량이 전작보다 50% 많은 432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만큼, 국내 공급사들의 수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3월 AMD와 업무협약을 맺고 MI455X용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기존 MI350 계열에 HBM3E를 공급한 데 이어 신형 가속기에도 메모리를 공급하는 만큼 AMD의 생산 확대에 따른 납품 증가가 예상된다.

이미 HBM4는 삼성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2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60%로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은 AI 가속기용 HBM에 이어 서버용 D램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두 회사는 헬리오스와 6세대 에픽 CPU에 최적화한 고성능 DDR5 D램을 공동 개발 중이며, 양산 공급 여부와 구매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도 AMD의 신형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4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수 CEO는 지난달 7일 방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기반으로 MI455와 헬리오스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MD의 헬리오스 생산 확대는 SK하이닉스의 HBM4 증산 일정과 맞물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말까지 청주 M15X 생산능력을 최대 수준으로 높여 HBM4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 HBM3E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HBM 공급을 위한 거래 조건 협의도 각각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공급 물량의 가격 협상을 마쳤으며 이미 완판된 상태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내년 공급 물량과 가격을 포함한 거래 조건 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두 회사의 AMD향 제품별 공급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AMD도 내년 성장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수 CEO는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고객의 도입 일정에 맞춰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등 주요 부품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며 공급망 협력사들과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자산 기본법부터 제정
기업·투자자 적응기간 둬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번 제안은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3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건의한 다음날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 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2년 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선 청년들이 가상자산을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여기고 있는 점과, 대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일정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재경위 내에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입각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차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과 함께 과세 ▲과세 안정성 시뮬레이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를 위한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
▲박지원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져…트럼프, 중간선거 참패하면 돌파구는 북핵 문제" /사진 뉴시스
▲與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올릴 예정"
▲김남희 "李정부 성공·총선 승리, 모두의 여성위원회가 뒷받침"
▲한 총리 "이제는 불평등·양극화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박홍근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제고·양극화 완화에 중점"